

---

---

노인복지·보건의료·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 정책 사례 연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2023년 6월)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공무국외출장 개요

① 출 장 국 :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② 출장목적

- 선진국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을 시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후 독일이 지향하는 보건·의료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방안을 강구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방문하여, 지방자치행정 및 지방 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콘라드 아데나워(Konrad-Adenauer-Stiftung)재단

- 최초의 연방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의 이름에서 유래한 정치 재단
- 독일 베를린에 본사, 전 세계적으로 78개의 사무소 운영
-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 정치 재단

③ 출장동기 및 배경

-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증가에 따른 장단기적 어르신 복지 시스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지방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선험국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정책 동향과 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법규 입안 추진 모색
- 코로나 시대 이후, 복지 선진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개혁 동향과 혁신 방향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서울 중구)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 이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함

④ 출장기간 : 2023. 5. 15.(월) ~ 2023. 5. 23.(화) [7박 9일]

⑤ 보고서 작성자 : 손주하 의원 외 참가의의원 2인

⑥ 출장자 명단 (총 5명 / 구의원 3명 및 공무원 2명)

연 번	직 위	성 명	내 용
1	의원	소 재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국의출장 총괄</li> <li>◇ 문화관광자원 정책 발굴 및 연구</li> </ul>
2	의원	양 은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 정책 발굴 및 적용 검토</li> <li>◇ 출장국의 퍼스널모빌리티 등 혁신적 교통수단 조사</li> </ul>
3	의원	손 주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정책 동향 조사 및 발굴</li> <li>◇ 해외 방문 기관 섭외</li> </ul>
4	팀장	강 유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주거, 교통정책 등 생활환경 비교 검토</li> <li>◇ 출장 일정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등</li> </ul>
5	주무관	배 은 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 행정지원 및 총무</li> <li>◇ 해외 방문 기관 및 현장 사진 촬영 등</li> </ul>

#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출장일정	2
III. 방문국가 및 도시 현황	3
IV. 주요 방문성과	7
1. 헤시안 병원 협회(HKG)	
2.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4. 현장시찰 및 문화유산탐방의 시사점	
V. 주요 활동	17
1. 헤시안 병원 협회(HKG)	
2.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3. 콘라드 아데나워재단(KAS)	
4. 현장시찰 및 문화유산탐방	
VI. 출장후기	37
VII. 참 조	42

# I. 출장개요

- 출 장 국 :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 출장기간 : 2023. 5. 15.(월) ~ 2023. 5. 23.(화) [7박 9일]
- 주요 방문기관 및 장소
  - 헤시안 병원 협회(HKG)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 베를린시 하원의회(Abgeordnetenhaus of Berlin)
  - 베를린 교통서비스 통합플랫폼 (Jelbi Mobility in Berlin)
  - 훔볼트 대학교 및 도서관(Humboldt University/Jacob und Wilhelm Grimm Zentrum)
  - 상수시 궁전(Sanssouci Palace)
- 출장자 (총 5명 / 구의원 3명 및 공무원 2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중구의회	의원	소 재 권	
2	중구의회	의원	양 은 미	
3	중구의회	의원	손 주 하	
4	중구의회	팀장	강 유 구	
5	중구의회	주무관	배 은 혜	

- 주요내용
  - 선진국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시찰을 통한 장단기적 어르신 복지 시스템 기반 구축
  - 독일이 지향하는 보건·의료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한 벤치마킹
  - 지방자치행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 베를린 도심의 주거, 교통정책 등 생활환경 비교 시찰
  - 독일 문화관광자원 및 행정기관 탐방을 통한 역사, 문화관광자원 운영실태 시찰

## II.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도시	방문기관	업무내용
5.15. (월)	인천 프랑크푸르트		○ 인천국제공항 출발[12:20]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13시간 10분 소요)
5.16. (화)	프랑크푸르트	기관방문 (헤센주 헤시안 병원협회)	○ 선협국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 고찰 - 우리 구 보건·의료 정책 실태 비교 시찰 및 발전방안 고찰 ※ 헤센주 헤시안 병원협회: 헤센주의 거의 모든 병원 가입(약 150개 이상)
5.17. (수)	프랑크푸르트	현장시찰 (Innenstadt I, 시내 1구역)	○ 도심 주거, 교통정책 등 생활환경 비교 시찰 - 우리 구 교통행정, 도심 재생 실태 비교 및 발전방안 고찰 - 도심 퍼스널 모빌리티 체험
			○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출발 ○ 베를린 중앙역 도착(4시간 소요)
5.18. (목)	베를린	현장시찰 (포츠담)	○ 문화관광자원 탐방 및 비교 시찰 - 도심 속의 역사, 문화관광자원 운영실태 시찰 - 베를린 → 포츠담(지하철 이용, 30분 소요)
5.19. (금)	베를린	기관방문 (연방 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	○ 연방정부 어르신 복지부처 방문 - 독일 노인복지 정책 및 동향 탐구 - 우리 구 노인 복지정책 비교 시찰 및 발전방안 고찰
		기관방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방문 - 현지 지방의회 의원 간담회 및 지방정치 발전 방향 논의 - 선진 지방자치행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관련 컨퍼런스
		기관시찰 (베를린시 하원의회)	○ 베를린시 하원의회(Abgeordnetenhaus of Berlin) 방문 - 베를린시 하원의회 역사와 현황 등 현지 지방의회 비교 시찰
5.20. (토)	베를린	현장시찰	○ 도심 주거, 교통정책 등 생활환경 비교 시찰 - 우리 구 교통행정, 주거지역 생활환경(주차 등) 비교 고찰 - 베를린 도심 대중교통 직접 이용(Jelbi Mobility 서비스) ※ Jelbi Mobility 서비스: 기차, 트램, 전동스쿠터 등 12종류의 통합 운송 서비스 플랫폼 ○ 문화관광자원 및 행정기관 탐방 및 비교 시찰 (브란덴부르크 문, 홀로코스트 기념관, 국가 의사당) - 도심 속의 역사, 문화관광자원 운영실태 시찰
5.21. (일)	베를린	현장시찰	○ 문화관광자원 및 행정기관 탐방 및 비교 시찰 (훔볼트 대학교 및 도서관, 베를린 돔, 베를린 박물관 섬 등) - 도심 속의 역사, 문화관광자원 운영실태 시찰
5.22. (월) ~ 5.23. (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인천		○ 베를린 ~ 프랑크푸르트 이동 ○ 인천국제공항 도착[09:45] (11시간 20분 소요)

노인복지·보건의료·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  
정책 사례 연구 및 전문성 강화

독일(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방문

# Ⅲ. 방문국가 및 도시현황



# 1. 독 일(Germany)



## ◆ 일반사항

- 국 명 : 독일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인 구 : 약 8,330만 명 (세계 19위)
- 인구구성 : 독일 국적자 87.8%(독일인 74.5%, 이주민 6.2%, 이주가정 태생인 7.1%),  
외국 국적자 12.2%
- 면 적 : 357,588km<sup>2</sup>(한반도의 약 1.6배)
- 언 어 : 독일어
- 수 도 : 베를린(인구 372만 명)
- 통 화 : 유로(Euro)
- 종 교 : 가톨릭 26%, 개신교 24%, 이슬람교 4%, 무교 42%, 기타 4%
- 기 후 : 전반적으로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로 높은 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  
(4계절 구분, 온화 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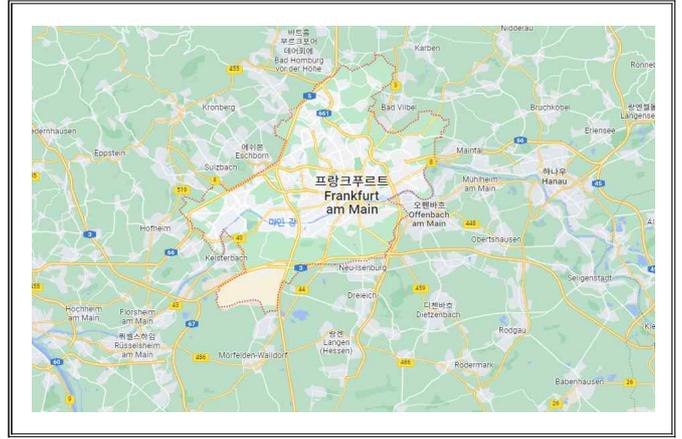
## ◆ 정치현황

- 정부체제 : 연방공화제(16개 연 방주로 구성)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총리 : 올라프솔츠)
- 의회구성 : 양원제(연방하원 : 736석 / 연방상원 : 69석)
- 주요정당 : 사회민주당(SPD), 기독교민주당(CDU), 기독교사회당(CSU),  
자유민주당(FDP), 녹색당(die Grune), 좌파당(die Linke), 독일대안당(AfD)

## ◆ 경제현황

- 주요 경제지표
  - GDP('21) : 3조 5,706억 유로(세계 4위)(1인당 GDP : 42,918유로)
  - 교역('21) : 2조 5,780유로(수출 : 1조 3,750억 유로 / 수입 : 1조 2,030억 유로)
  - 실질경제 성장률 : -4.6%(2020), 2.9%(2021), 1.4%(2022 전망), -0.4%(2023 전망)
  - 물가상승률 : 8.0%(2022 전망), 7.0%(2023 전망) / 실업률 : 5.5%(2022.9월)
  - 화폐단위 : EURO(€1=1,390원 : '22.11.10 기준)

## 1-1.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행정구역 : 헤센주)



### ◆ 일반사항

- 면적 : 248,31km<sup>2</sup>
- 인구 : 약 746,878명(17년 기준) / km<sup>2</sup> 당 3,000명

### ◆ 기타사항

- 헤센주 최대 도시이며 독일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 독일의 경제 중심지
  - 독일 행정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만큼 독일의 경제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 중심지답게 프랑크푸르트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가 위치하여 런던과 함께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의 교통 중심지
  - 지리적으로 유럽 중앙부에 위치 해있어서 유럽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가 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공항과 직항 노선이 개설된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이 위치 해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독일 수도 베를린에 가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로 입국해 갈아타야 함
- 한국과의 관계
  -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여러 대기업이 진출해 있어 약 1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있음

## 1-2. 베를린(Berlin)



### ◆ 일반사항

- 면적 : 891.3 km<sup>2</sup>
- 인구 : 약 3,677,472명(21년 기준) / km<sup>2</sup> 당 4,126명
  - 유럽 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 ◆ 정치현황

- 연방정부의 14개 부처 중 외무부, 재무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베를린에 소재
- 베를린 구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있는 편
  - 미테구, 프리드리히스하인-크로이츠베르크구 등 시내 중심부는 녹색당이 강세
  - 샤를로텐부르크-빌메르스도르프구 등의 외곽 지역은 기민련이 강세
  - 리히텐베르크구, 트렙토-콤포니크구 등은 좌파당이 강세,
  - 마르찬-헬러스도르프구는 독일을 위한 대안이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
  - 슈판다우구와 노이퀼른구에서는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였지만, 2023년 재선거에서 이들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하여 딱히 강세 지역이 남아있지 않음

### ◆ 기타사항

-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자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독일의 최대 도시
- 문화, 정치, 매체, 과학, 교육의 세계적인 도시
  -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베를린 공과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베를린 예술대학교, ESMT Berlin, 헤르티 스쿨 등이 있음
- 한국의 특별시 취급과 비슷
  - 도시 주로 브란덴부르크 주 내부에 둘러싸여 있으며 독일의 나머지 도시주들인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정식 명칭이 자유 한자시(stadt)인 데 반해, 베를린의 정식 명칭은 베를린 주(Land)이다.

노인복지·보건의료·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  
정책 사례 연구 및 전문성 강화

독일(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방문

## IV. 주요 방문성과



## 1. 헤시안 병원협회(HKG)

- 출장단은 헤시안 병원협회 회장과 의학 및 품질관리 분과 담당자, 대외 협력 홍보 담당자 면담을 통해 독일 헤센주 병원협회에 속한 병원의 의료인력 직업 교육 및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 의료 시스템의 지방자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이 함께하는 헤시안주 병원협회로 운영되다 보니 의료상의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음.
- 헤시안주 안에서도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권역별 대표 병원이 지정되고 그 병원이 협회 소속의 소규모 병원들을 코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병원의 체계가 잘 잡힌 상태(권역별 구조는 헤시안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모델로 삼아 독일 연방의 다른 주들도 시행 중)
- 2020년 독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 정책의 개혁안이 발효되어 간병 인력과 요양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되었음

## 2.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출장단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처의 노인 전문 연구원 면담을 통해 독일의 요양 및 돌봄에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교육 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독일의 요양간병인 부족 사태의 대응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독일은 돌봄 가족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편이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독일 연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1차 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이 요양하는 재가요양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만, 가족들의 노동 활동을 위해 요양 불가 시 임시적(6주 한도) 으로 요양원에서 요양 가능한 제도가 있음. 2023년 독일 연방 부처에서 대표적인 돌봄 가족을 위한 시민단체 박소에 지원된 금액은 1,600만 ~ 1,700만 유로 정도임.

- 독일에는 최근 폴란드 등 외국인 간병인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요양간병인 알선 업체가 존재함.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제한이나 관섭보다는 독일 노동복지부, 보건복지부, 가족부 3개 부처가 같이하는 프로젝트에서 5개 사업분과 중 하나인 외국인 인격 분과에서 외국인 요양간병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에서도 요양간병인(보호사) 부족 사태의 상황을 인지하여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젊은 층의 해당 분야 직업 선호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 출장단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아시아태평양 권역 소속 국장 면담을 통해 재단의 정치적 위치와 역할과 재단의 주요 사업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양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설립 배경은 나치 시대를 거쳐 오면서 독재를 경험한 독일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설립되었음.
- 독일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으며 서독과 동독이 생기면서 그 당시 헌법의 근간이 생겼으며 헌법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3개의 정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민주당이 세워지며 굳건하게 유지되어왔음. 이 세 정당들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일의 민주주의를 끌어왔는데 1960년대에 정당마다 재단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설립되었음.
- 라틴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1개의 당이 독재를 하는 국가가 많았음. 그래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민주주의를 거쳐오면서 민주주의를 형성해온 경험을 다른 국가와 나누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재단에서 하고 있던 민주시민 교육을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육으로 확대하게 되었음.
- 민주주의 교육 내용에는 야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포함되어 있으며 야당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에서 복수 주의(다수성)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전파하는 역할을 함.

- 재단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외에도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분야 중에서도 정치 교육 분야에 주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의 콘라드 아데나워 사무실을 통해 민주주의 아이디어 이념을 구축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음. 또 자문기관 역할로서 정부, 국회,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하며, 사회 현상과 관련한 연구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 독일의 비례대표제 시스템은 주마다 선거법이 다르며 주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본 골격은 있음. 어떤 주는 10명 중에서 1명을 뽑기도 하고 바덴 디오텔베르크는 120명 명부에서 8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복수선택도 가능함. 한국처럼 당에 투표하는 용지와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용지가 따로 있는 부분에서는 같은 제도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아시아 권역에 21개 사무소 있으며 한국사무소처럼 한-독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에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문제점을 다루는 주제별 사무실이 존재함. 주제별 사무실의 역할은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이점이 있음.

#### 4. 현장시찰 및 문화유산탐방의 시사점

##### ○ 베를린시 하원의회 방문을 통해 양원제에 대해 생각해 보다.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베를린은 독일의 도시인 동시에 그 자체적으로 16개 주중 한 곳이다. 그리고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구제도 문제와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아젠다가 양원제(Bicameralism)도입이다. 양원제는 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일부는 직접 선출 또는 임명되어 참여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구성원들의 대표로 참여하는 방식이고 단원제(일원제)는 국회를 양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각각 장단점을 보면 단원제는 국정 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 지위가 강력하나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 시 해결이 어렵다. 양원제는 단원제하고는 달리 신중한 심의 절차로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으로 인한 잘못,

날치기 통과 방지가 가능하며 국회하고 정부 충돌 시 해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안이 더 오랜 시간 숙고한다는 국회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양원제 문제가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上院)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지방분권으로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급진적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 등 사회 구성원의 계층적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 단원제 국회로는 사회의 전반적 이질성과 갈등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더 큰 선진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녹아내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도입을 모든 국민이 함께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차량을 이용하며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를 생각하다.**

‘타다 금지법’은 우리나라의 공유 차량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입법이 국민경제와 경제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무죄판결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며 독일의 경우 2019년 세계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우버, 프리나우, 볼트, 쉐비, 무블 등 공유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연계된 앱이 대중교통과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 및 사회 보장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경제혁신 영역에서의 규제는 획일적, 이념적,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공유경제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큰 축이고 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교통이동 플랫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동장치 전용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정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등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일반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 프랑크푸르트 민박집과 베를린 에어비앤비에 머물며 주거환경을 생각하다.

독일의 첫 숙소에서 확인한 난방기구는 하이쥬이라는 난방기구가 설치되어있었다. 하이쥬 난방기구는 한국의 라디에이터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방과 화장실에 설치되어있었고 1~5단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지 숙소 주인 한국인 설명에 따르면 하이쥬를 꺼둔다고 난방비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른 저녁에는 난방 가동이 되지 않은 것 같았으며 취침 시간에 난방이 되는 식이었다. 두 번째 베를린 숙소 같은 경우는 하이쥬은 없었으며 한국의 보일러 난방 같은 온도조절기가 방마다 설치되어있다. 온도조절기와 온수는 상관없었으며 화장실은 한국과 비슷하나 샤워부스 형태로 만들어진 곳에서만 문을 닫아놓고 샤워해야 하는 구조였다. 베를린 숙소는 1층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뒤뜰을 이용해 옆집 텃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옆집 독일인들이 뒤뜰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 주거지를 확실히 구분하는데 보기 힘든 모습이었기에 생소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모습이였다. 주거지 주차 문제 부분에서는 양방향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앞 도로에 주차 공간 부분이 확보되어 있으며, 기간이 적혀 있는 스티커가 발급되어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소방시설과 횡단보도를 피해 주차할 수 있었다.

## ○ 훔볼트 대학 도서관을 보며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보다.

동화로 유명한 그림 형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훔볼트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그 유명세를 가진 만큼 건축물에 대한 기대도 너무 컸고 실제 벽찬 감동을 하였으며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자리에서 공부하거나 독서와 자료 수집을 위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많은 대중이 이용하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훔볼트 대학 도서관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는데 도서관 내부 열람실에는 투명 가방 안에 공부할 책 등만 가지고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중구의 공공도서관이 대학 도서관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공공도서관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다.

지역의 도서관은 문화와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 공간으로써 100% 이상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융복합 문화 교육 생활공간으로 나가야 한다.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인 정보제공과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적된 개개인의 에너지는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큰 사회자본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전문인력의 확충, 공립 및 사립 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 베를린 장벽과 통일교육의 대중화를 생각하다.

베를린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장소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동백림 간첩 사건을 많은 세대가 기억할 것이며 한국과 할리우드 스파이 영화의 단골 장소가 바로 이 베를린이다. 베를린을 한자로 표기하면 백림이라 하는데 70~80년대 한국에서는 동베를린을 동백림, 서베를린을 서백림이라 불렀다.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은 더 이상 아픔이 서린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핫스팟(Hot Spot)이었다.

우리의 지금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휴전선이 단순 관광명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별로 없었다. 물론 굳이 찾아서 들어 보려고 하면 한쪽에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교육들은 다수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 형식적 회의와 프로그램이 그나마 대중적 통일교육의 전부라는 게 안타깝다. 일반 대중에게 지금 당장에 피부로 와닿지 못한다는 심각성 결여가 통일교육을 저해하는 큰 이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도 또한 입시컨설팅 설명회 기회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만큼 큰 열의를 가지고 학생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교육과 참여 유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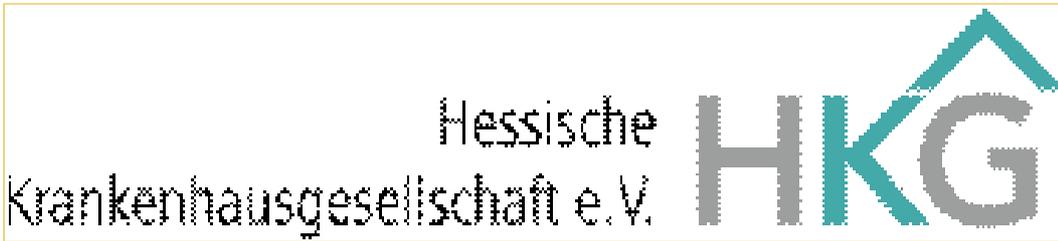
노인복지·보건의료·지방자치행정과 지방의회  
정책 사례 연구 및 전문성 강화

독일(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방문

## V. 주요활동



## 1. 헤시안 병원 협회(HKG)



- 기관명 : 헤시안 병원 협회(Hessische Krankenhaus Gesellschaft)
- 일 시 : 2023년 5월 16일(화) 10:00~12:30
- 장 소 : Frankfurter Strasse 10-14, Eschborn
- 면담자 : Christian Hoefftberger, Rhön-Klinikum AG(사장)(협회장),  
Christina Grün(의학·품질관리 담당), Doris Steyer(대외협력홍보담당)

### □ 기관 개요

- 1948년 설립, 헤센주 내 대부분 병원(150개 이상)을 대표
- 매년 120만 명의 환자, 73,000명의 직원과 고용원, 35,000병상 관리
- 정치적 관계, 공공 건강에서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

### □ 간담회 주제

- 독일 지역보건·의료정책 동향과 개혁 방향

### □ 간담회 내용

- 헤시안주 병원협회는 1948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독일의 16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그 주의 병원들을 총괄하는 협회들이 있으며 그 협회들이 모여 독일 전체의 병원협회를 이루고 있으며 헤시안주 병원협회도 독일 병원협회의 회원임
- 헤시안주 병원협회는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첫 번째 법률- 디지털화 분과, 두 번째 대외 홍보 분과, 세 번째 재정 분과, 마지막으로 의약품 및 구조 구급 서비스 담당 분과가 있음

- 협회의 회원 구분은 병원협회에 속해 있는 병원은 정회원으로 구분되며 후원금을 내는 후원 회원과 명예 회원 세 가지 범주의 회원으로 구분되며 모든 회원이 1년 1회 회원 총회를 진행함
- 헤시안주 안에서도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권역의 코디 역할을 하는 대표 대형 병원이 작은 병원들을 관리하는 구조를 헤시안주 병원협회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는 병원 및 의료 정책을 논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탄탄하게 마련되었음
- 협회의 재정 유지는 회원 병원들의 기본 회비와 개별 병원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비, 특수한 업무에 대한 분담금으로 유지됨
- 2024년 독일연방정부의 병원 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개혁이 시도되었으며 2024년 병원 개혁법은 레벨을 세분화했음. 병원마다 나눈 레벨과 병원마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룹이 나뉨
- 개혁법 안에는 요양기관에서도 의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응답

**질문 1) 독일에서는 1인 가구라든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차별화된 의료 정책이 있는가?**

→ 독일에서는 요양원, 요양기관에 의료진이 파견되는 것만 존재하며 주거지에 찾아가는 서비스 및 정책은 없음. 다만 현재 독일 정치권에서 병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동네마다 간이시설처럼 의사가 상주하는 키오스크를 만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시 1차적으로 잠깐 들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라는 논의는 있음.

**질문 2) 헤시안주도 병원 레벨이 나누어지듯이 한국에서도 1~3차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3차 대학 병원급 같은 병원들이 헤시안주에서 공공 비율로는 어느 정도인가?**

- 헤시안주 병원협회의 6권역에서 한 권역마다 2개 정도의 맥시멈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병원이 있음. 맥시멈의 조건은 1천 개 이상 병상이 있는 대형 병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헤시안주 전체에는 크고 작은 150개의 병원이 존재함. 이 중 공공병원의 비율은 1/3 정도이며 사설 병원이 약 33%, 공익기관 및 복지기관(카리타스 가톨릭 재단, 디아코니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1/3 정도.

**질문 3)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비율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주 정부와 의료보험 회사에서 지원받으며 주 정부에서는 1년에 3억 8천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음, 하지만 실제 필요한 예산은 5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므로 이를 메꾸기 위해 병원별 수술, 치료 건수 늘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질문 4) 특수 예산 등 의료의 전반적인 정책을 위해 독일 16개 주 병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 1차적으로 연방 차원까지는 가지 않고 주마다 주 정부에 보건복지부가 있으므로 주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1차 논의 후 각 주의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연방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임.
- 주 병원협회-보건복지부는 비공식적으로도 편하게 자주 회의를 가지는 편임.

**질문 5) 독일은 주의 권한이 매우 큰 것 같다. 2024년 시행될 병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독일 내 반응은 어떤지?**

- 독일은 국가 예산을 병원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정하지만 실제로 그 예산을 운영하고 어떤 병원을 없애고 어떤 병원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는 헤시안주 정부와 그 주의 병원협회에서 같이 결정함. 독일은 많은 권한이 주 정부로 넘어와 있음
- 2024년 병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방주에서는 연방국가에게 연방주 권한에 대한 월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며 분쟁이 많은 편임

**질문 6) 한국도 독일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요양 문제와 의료진 비선호 전공이 늘고 있다. 독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지방 소도시 기준 소아·청소년과 문제 등)**

→ 독일도 노인 인구들이 늘어질수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젊은 세대 인력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음, 우선 첫 번째 정책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으며 일반 가정의학과 전공을 의대에 개설하여 의대 졸업 후 10년 정도 지방의 일반 가정 의로서 일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

## 현장방문사진



## 2.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기관명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 10:00~11:30
- 장 소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11018 Berlin, 2층 회의실
- 면담자 : Sabine Rüger(노인분과 연구원)

### □ 기관개요

-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
-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이 청소년·가족·복지 분야 관리
- 900여 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예산이 약 132억 유로(약 17조 원)에 이르는 중상위 규모 부처
  - ※ 독일 정부 예산의 약 2.4% 차지

### □ 간담회 주제

- 독일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어르신 복지정책 동향과 개혁 방향

### □ 간담회 내용

#### \* 주독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전 전달된 주요 질문내용으로 설명 진행(사전질문지 참고)

- 독일 연방정부 BMFSFJ 부처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1명의 장관과 3명의 차관이 있음
- 노인 분과는 두 가지로 세분되어 있으며 하나는 노인 돌봄 요양 부서와 노인의 사회 참여 팀으로 나누어져 있음

- 한국과는 다르게 독일은 연방 정부이므로 독일 내 16개의 연방 주로 나누어져 있고 연방 주마다 법이 따로 존재하며 주의 노동정책법, 여성정책법, 노인정책법이 있음. 그러므로 연방 정부(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하향식으로 받아서 16개의 연방 주들이 정책 실행을 하는 구조식이 아님
- 독일 연방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아직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이 두 분류의 노인들이 노년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주요 목적임.
- 현재 독일 인구 8,500만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는 50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중 84%인 약 400만 명 정도의 노인들은 재가 돌봄 서비스, 16%는 요양원 또는 돌봄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받고 있음.
- 84%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약 250만 명은 직계 혈통의 가족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50만 명은 적십자 등 개인 요양 서비스(재가용)를 받고 있음, 독일은 의무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험을 들게 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이 맞물려 있긴 상태.
- 독일 노인 복지정책은 재가요양이 시설 요양보다 앞서고 있으며 요양 등급은 심사를 통해 5개 요양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을 받은 이후 ① 요양 급여와 ② 요양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함.

**<독일 노인 요양 등급>**

등급	지원금액	재가서비스 지원금액	지원 형태
1	약 125유로	-	요양서비스 차감형태 (병원 동행 50유로차감, 문화행사 동행 금액 차감 방식)
2	약 316유로	약 689유로	현금지원 및 요양서비스 차감형태 병행
3	약 545유로	약 1,298유로	
4	약 728유로	약 1,612유로	
5	약 901유로	약 1,995유로	

**\*요양원에 갈 수 있는 등급은 2등급부터 가능**

- 독일 요양보험에서는 재가요양을 하던 중 요양하던 가족의 치료목적, 노동의 이유로 힘들 경우 요양보험 법적으로 단기 요양원 체류가 가능한 제도가 있음.  
이 제도는 6개월 6주 한정이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상태임.
- 위 제도와 별도로 가족이 요양을 계속하는 부분에서 휴가가 필요할 때도 단기 요양원 체류 가능.
- 또 보험회사에서 주는 혜택으로, 노인 주거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주택에 모여 거주하면 추가금을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음.
- 독일 내에서는 (재가)요양을 하는 가족을 위한 시민단체가 많이 존재하는 편임, 복잡한 요양 제도에 관해 법률 상담 및 심리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시기에 독일의 요양원 사망자 수가 늘면서 독일 연방 정부에서도 가족 면회를 금지하게 되었는데 이때 시민단체들이 면회 완화를 위한 법률 소송까지 대신해주기도 했음.
- 독일에는 최근 외국인 요양간병인 알선 업체가 늘고 있으며 폴란드 등 외국인 간병인을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하지만 언어적인 부분 등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독일 연방정부의 노동복지부, 보건복지부, 가족부 3개 부처가 같이하는 프로젝트 5개 사업분과 중 하나인 외국인 인격 분과에서 외국인 요양간병인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연방 정부의 노인 요양 분과의 세부 분과 중 하나인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과 돌봄 서비스의 조화를 이루는 조합에서는 노동시장의 손실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음
- 독일 연방 정부는 노인 정책의 우수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진행함. 그 사람 다음 연방 정부에서는 독일 연방 전체를 관장하는 조직인 '노인 정책을 장려하는 연방 조직' 「박소」라는 약자의 조직을 통해 컨설팅 비용과 지원금을 지원하며 노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연간 1,600만~1,700만 유로 지원)

★「박소」 : 독일 노인 단체 연방 총회(125개 세부 조직으로 나뉨)

## < 「박소」와 함께한 프로젝트 >

### 1) 노인 테마 사진 공모전 및 엽서



### 2) 연간 보고서(예 : 국가치매전략-단기버전)



-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독일의 아마추어 연극단 특수 분과인 ‘노인 연극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며 여가 활동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함
-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해마다 노인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장관의 연구 의뢰가 시작되면 심리학자, 사회학자, 노인인구 조사, 인구 조사 등 여러 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위원회를 이루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함
- 노인 평생 교육으로는 최근 나온 노인현황 보고서의 “노인들에게서의 디지털화” 내용을 토대로 박소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춰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 등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주제로 독일 내에서는 대단히 큰 화두가 되어 있음
-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를 끌어내고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노인 정책에서 굉장한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 노인 사회 참여 활동 사례 >

1) 동물 복지 2) 유치원 활동 보조 3)요양원 방문 서비스(60대 젊은층의 노인)

- 독일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고독 극복 및 치매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현재 180만 명 정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있으며 2050년에는 2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 추산하고 있음 독일 연방 정부에서도 이 수치를 대비하여 국가 치매 전략을 내놓았으며 여러 부처와 주체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테마 화 해서 다루고 있음.

## 사전질문지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방문 관련 서울 중구의회 질문사항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및 동향 -

#### <사전 질문사항>

※ 중구의회 출장단이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관련 부서(BMFSFJ)에 사전 제출한 자료

#### 1. 현 황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현금, 현물, VOUCHER 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고령의 진전과 베이비붐세대의 대거 노인인구 편입, 노인집단 내 다양성 증가, 가구 형태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시> 서울시 중구청의 시혜성 복지정책

- ① 영양더하기 사업(안정적 식사 환경 제공) : 65세 이상 취약계층, 100,000원 포인트 지급
  - ② 교통카드 지원사업(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 65세 이상 취약계층, 50,000원 포인트 지급
- ※ 사업추진 예정

## 2. 노인복지 정책 유형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① 소득보장, ② 건강보장(건강증진 서비스, 돌봄 서비스), ③ 사회참여(일자리 지원, 여가 문화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 건강보장 중 건강증진 서비스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잘 마련되어 있다.

위 유형 중 아직 우리에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돌봄 서비스와 사회참여(일자리 지원, 여가 문화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 3. 질문내용

### ■ 건강보장 중 돌봄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 중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Federal level과 State level에서의 장단기적 정책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시설 중심에서 재가(在家) 중심으로 돌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으며 현재 없다면 향후 계획 하고 있는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 시설복지서비스의 개념 : 시설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설보호는 재가 보호나 지역사회 보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 자신이 사는 생활공간인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 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가 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보호나 클라이언트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가족의 약화 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이다.

3> 아울러, 요양이 필요하기 전 사전적 예방적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적 예방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사회참여(일자리 지원, 여가 문화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Federal level과 State level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으며 일자리와 더불어 노인 인권과 학대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법적 강제 규정 등이 있다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 노인 일자리에에는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 근로 능력 향상, 창업지원 등 또한 같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한국의 경우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등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경우 노래 교실, 단순 체육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직영 혹은 위탁, 예산책정 등)되는지 알고 싶으며, 노인 여가 문화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주 정부 및 지역 정부(구청)와 함께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의 실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단순 중앙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따르고 재원만 제공하는 식의 정책을 펼치는 수준입니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이 부족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 수요를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know-how 내지 조사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추가 질문사항 >

질문> 비스마르크시대 시대 때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있는데 독일도 이와 관련하여 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있나요?

질문> 치매는 국가나 개인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노인 건강관리 대상입니다. 치매와 관련하여 어떻게 선제적(조기 검진, 고위험군 관리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과 어떤 자원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한국은 primary care(1차 진료) 차원에서 노인과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적 차원과 요양의 사전적 예방적 접근 측면에서 독일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방문간호사(Gate Keeper)는 지역별 담당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간호 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연계 처리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질문> 한국의 경우 상위계층의 노인들은 노년에 값비싼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며, 하위계층의 노인들은 일정 수준의 연금 서비스를 받지만, 중위계층(중하층)의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계층을 위한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가 있나요?

### 현장방문사진



### 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 기관명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일 시 : 2023년 5월 19일(금) 14:00~15:30
- 장 소 : Klingelhöferstraße 23, 10785 Berlin
- 면담자 : David Merkle(specialist in German politics and KAS-CDU relations)

#### 기관개요

- 최초의 연방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의 이름에서 유래한 정치 재단
- 독일 베를린에 본사, 전 세계적으로 78개의 사무소 운영
-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 정치 재단

#### 간담회 주제

- 독일 지방정치 및 지방자치 성격과 최신동향

#### 간담회 내용

- \* 질의응답으로 바로 시작

## 질의응답

질문 1)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재단의 핵심 가치 및 주요 활동은 무엇이며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재단의 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나치 시대를 거쳐 오며 독재를 경험한 독일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첫 번째 근간이 되는 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각성을 하게 되면서 재단 설립이 됨.

- 독일 민주주의의 전후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서독과 동독이 생겼는데 그때 헌법의 근간이 생김, 1945년 처음 헌법이 생길 때부터 세 개의 정당(사회 민주당, 기독교 민주당, 자유 민주당)이 있었고 이 세 개의 정당이 정당 체제와 독일의 민주주의를 시작부터 이끌어왔음.
- 60년대 세 개의 정당에서 각 정당의 재단을 설립해 민주주의를 교육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으며 정당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처음 1955년 기민당(기독교 민주당)의 교육 센터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 60년대에 재단의 형태를 갖추게 됨.
- 1960년대에 민주주의를 위한 재단이 많이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와 젊은 민주주의라는 모토가 있었음.
- 예를 들어 독재 국가인 라틴 아메리카는 1당이 독재하고 있는 형태였고 독일 민주주의를 형성해온 경험을 다른 국가와 나누자는 공감대 형성이 되었음.  
전 세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방법을 전파하는 데 주력함.

### ① 왜 야당이 필요한가?

### ② 야당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에서 복수 주의가 왜 중요한가?

-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재단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중요한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음.
  - 1) 첫 번째, 정치적인 교육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정치 교육 분야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음.
  - 2) 두 번째, 국제협력 사업으로 전 세계 110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민주주의의 아이디어 이념을 구축시키고 있음. 국제협력 사업안에는 타 국가의 기업들도 포함되며 안보 문제, 개발도상국 등 국제 관계를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 중
  - 3) 세 번째, 국회 및 의회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주요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독일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함.

질문 2) 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의 정치적인 의식 혁명을 위한 부분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펼치고 있는 주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재단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연계된 세미나, 콘퍼런스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단의 모태가 1955년 교육 센터였고 지금도 독일 각 주에 교육 센터가 총 16개 있음. 바이에른주에만 기사련(CSO) 정당 산하의 한스 사이델 재단이 있으며 15개 주에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산하의 교육기관이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재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한 명이 지방 정치가들이며 그 정치가들이 워크숍을 할 때 지방 정치권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그 주제에 맞게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음  
※트렌드 예시 : 연설시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 할 수 있는가?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 접근법)
-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며 재단의 장학금을 받는 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를 통해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년에는 한국이 어떻게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잡고 회의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질문 3) 한국의 경우는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에 있어 당공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독일은 어떤 공천 시스템으로 진행되나요?

- 독일의 비례대표 후보는 명부 후보라고 하며 1순위부터 해서 순위를 정할 때 읍·면 추천이 들어오면 그 주의 당에서 1차적 검토 진행되며 각 당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순위를 결정함.
- 선거 시스템은 각주마다 선거법이 다르며 주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본 골격은 있음. 어떤 주는 10명 중에서 1명을 뽑기도 하고 어떤 바덴 디오텐 베르크는 120명 명부에서 8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복수선택도 가능함. 한국처럼 당에 투표하는 용지와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용지가 따로 있는 부분에서는 같은 제도.

질문 4) 전 세계 110개 사업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독일 외 유럽 국가의 네트워크와 아시아 네트워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아시아 권역에 21개 사무소 있으며 한국사무소처럼 독일-한국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에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문제점을 다루는 주제별 사무실이 존재함. 주제별 사무실의 역할은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이점이 있음.

질문 5) 젊은 세대 정치인들을 위해 어떤 과제를 안고 나아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권력을 남용하고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정당의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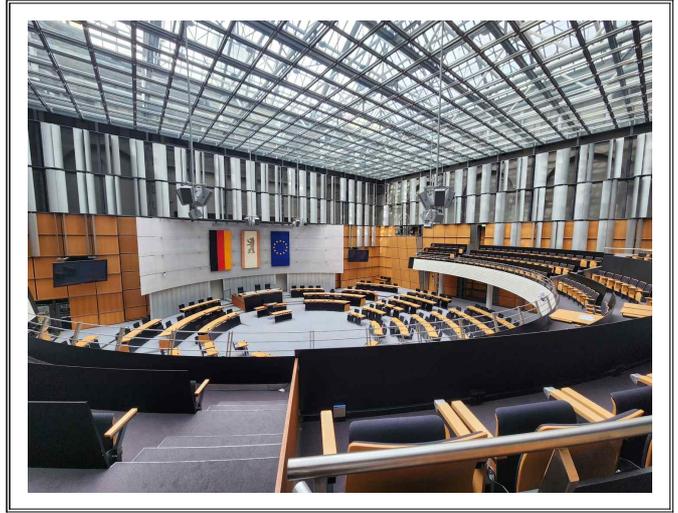
→ 어떤 정당이든 위계질서가 있고 기민당(CDU)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사이에 너무 딱딱한 위계질서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봄.

### 현장방문사진



## 4. 현장시찰 및 문화유산탐방

### ○ 베를린시 하원의회(Abgeordnetenhaus of Berlin)



- 1951년 서베를린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통일 후에도 통일된 베를린의 의회가 되었음
- 베를린 의회는 5년마다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일반, 자유, 비밀,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최소 13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78명은 베를린 자치구의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되고 52명은 토지 또는 구역 목록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됨

○ 베를린 교통서비스 통합플랫폼 (Jelbi Mobility in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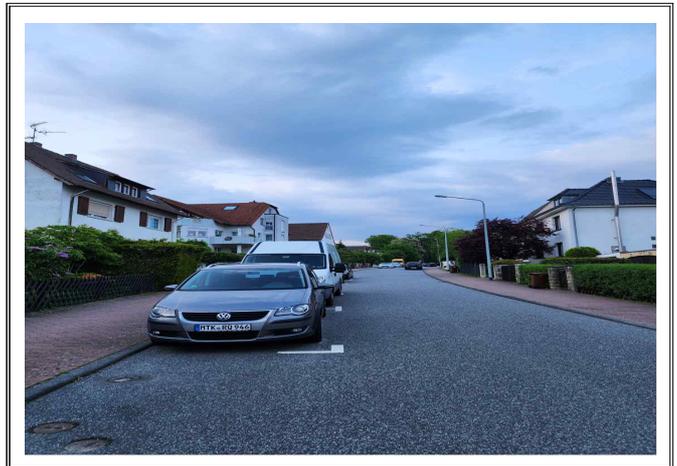
- 2019년에 출시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독일 베를린교통공사)-민간(플랫폼사 'Trafi')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로, 베를린의 대중교통과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트램, 지하철, 택시는 물론이며 스쿠터, 자전거, 카셰어링 등 이용이 가능함

○ 베를린 대중교통 이용(Public Tran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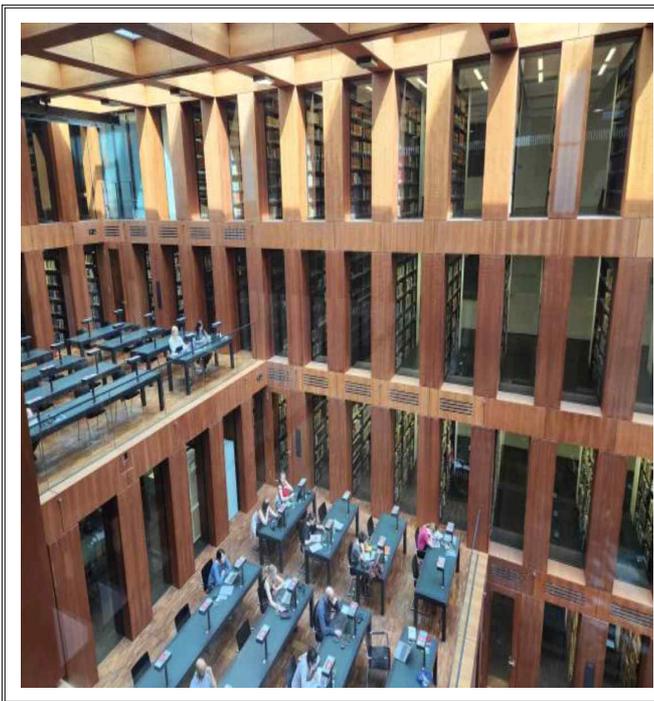
- 독일의 주요 대중교통으로는 S-Bahn(일반열차), U-Bahn(지하철), Tram(트램), Bus(버스) 등이 있음
- S-Bahn은 U-Bahn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빠른 열차로 한국의 경의중앙선이나 분당선과 비슷한 광역전철의 역할을 함
- Tram 및 Bus는 열차가 닿지 않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할 때 편리함
  - ✓ 지하철 이용 시 종이 티켓을 구매한 경우 편칭(날짜 확인) 반드시 필수

○ 주거지역 생활환경(프랑크푸르트 민박집 및 베를린 숙소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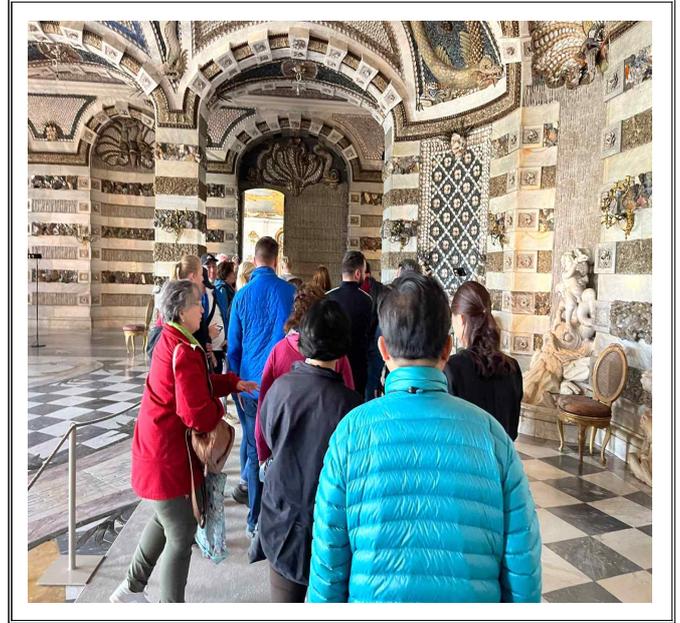
- 프랑크푸르트 민박집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S-Bahn 기준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인 'Bad Soden'에 위치고 있으며, 공원이 많고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 편임
- 이른 아침부터 안전 장구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3인 1조로 노동자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음식물 수거 작업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매우 훌륭했음
-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일적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앞 도로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인도, 자전거 도로,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음

○ **훔볼트 대학교 및 도서관(Humboldt University/Jacob und Wilhelm Grimm Zent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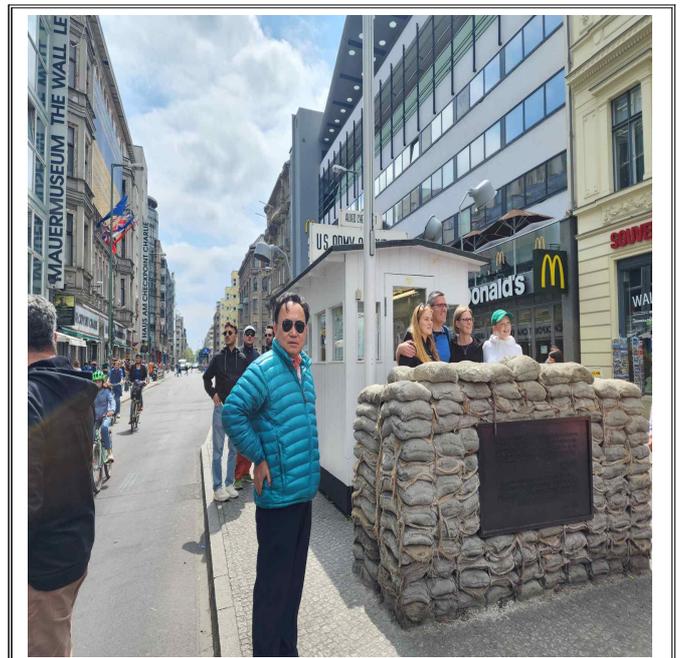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손꼽히며, 동화로 유명한 그림 형제의 이름을 따
- 베를린에서 가장 전통있는 대학교로, 노벨 수상자 수십명을 배출함
- 아인슈타인 등 세계의 석학이 졸업한 대학

## ○ 포츠담 상수시 궁전(Sanssouci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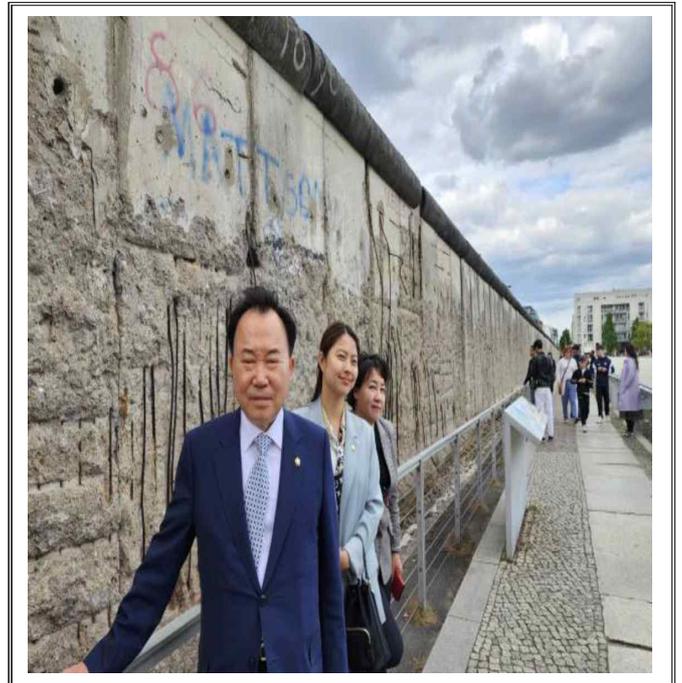
- 독일에서 가장 큰 세계문화유산이며 상수시(Sans souci)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라는 뜻임
-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7월에 미국·영국·중국의 3개국 대표가 포츠담에 모여 일본의 항복 조건과 일본 점령지의 처리를 주제로 발표한 포츠담 선언이 있었으며, 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도 약속되었음

## ○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



- 옛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계에 있던 연합군과 소련군의 검문소이며, 베를린 장벽, 동서독 국경과 함께 독일 분단과 냉전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은 연합군 3군 중 미 육군이 관할했었음
-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 및 동독으로 넘어가는 검문소 중 체크포인트 찰리는 외국인이 통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검문소였음

○ 베를린 장벽(Berlin Wall)



- 1961년 동독 정부가 군을 동원하여 동베를린과 서방3개국의 분할점령 지역인 서베를린 경계가 쌓은 콘크리트 담장으로, 약 60m에 이르는 장벽이 고스란히 남아있음
-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족분단의 아픔과 진행의 역사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베를린 장벽은 그 어떤 역사물보다도 큰 울림을 주고 있음

○ 유로타워(Euro Tower)



- 유로타워는 1977년에 건립되었고 148m 높이에 40개 층으로 이루어진 고층 건물로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앞에는 커다란 유로화 조형물인 유로심볼(12개의 유럽 국가를 상징하는 노란색 별)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단일 유럽 및 단일 통화를 상징함

## VI. 출장 후기

출장 후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이번 출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이좌성 서기관님, 프랑크푸르트 강찬우 영사님, 콘나르 아데나워 재단 한국지부 송유진 국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미진 과장님, 정선운 팀장님, 보건소 지역보건과 김은경 과장님, 최수미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존 대부분의 기초 의회가 여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국외 출장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편견을 허물고자 어떻게 제대로 된 국외 출장을 준비하고 갈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했었고, 결국 예산 범위 내에서 **여행사 등 업체의 소개를 통한 외유성 출장을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기관 섭외, 출장 일정 등 출장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보다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의 모범이 되어 보고자 역대 중구의회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출장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설정한 후 방문 기관 섭외를 위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그리고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지부 관계자분에게 방문 목적과 동기를 메일과 전화로 수십여 차례 접촉을 한 결과, 기관방문 섭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출장 현지에서 통역을 해주실 통역사 또한 직접 섭외를 통해 무사히 선임하였다. 단순 몇 자를 통해 **기관 섭외와 통역사 섭외를 했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번 전체 출장 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다.**

중구의회 일정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독일 방문 통역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통역을 해주신 김지희 통역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우리 의원들은 출장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자체적 이견 조율을 마친 후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청 관련 부서 간 간담회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해당 부서로부터 출장 목적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 및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 < 중구의회 의원과 부서 간담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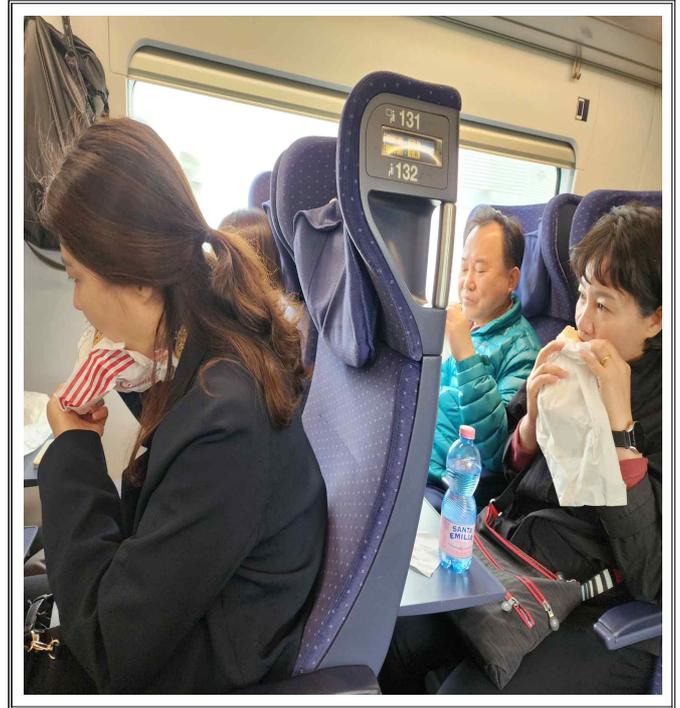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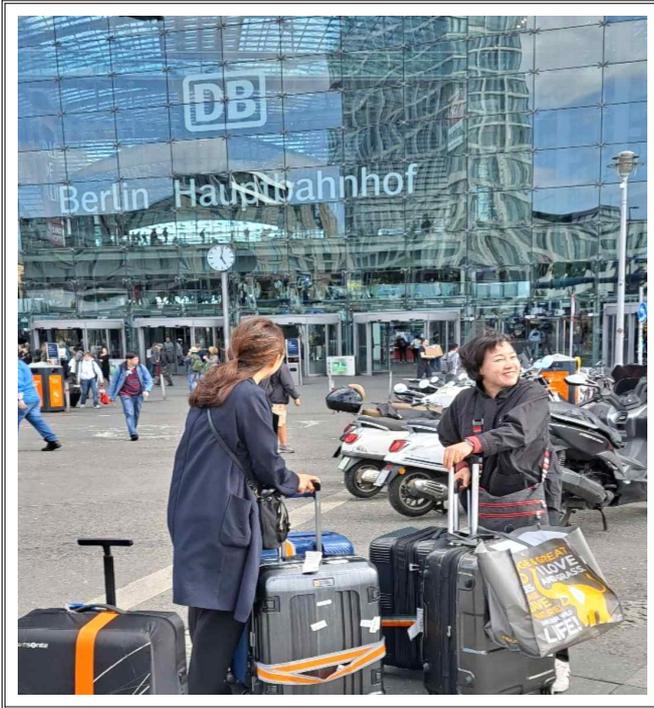
모든 사전 준비를 끝내고 우리 의원 3명은 루프트한자(독일 국적기) 항공기에 몸을 싣고 드디어 출장길에 올랐다. 1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온 시간은 이미 오후 9시가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낮같이 환해서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럽은 하절기에 낮 시간대가 길어져서 이에 따라 일광 절약 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 즉 썸머타임을 실시한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 한인 민박집 사장님 부부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로 목적했던 기관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ICE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베를린으로 향했다.

## < 프랑크푸르트 한인 민박집 >



##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 ICE 열차 이동 >



✓ ICE : 독일 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 열차로 최대 시속이 300km에 달하는 이체에 (ICE) 열차는 베를린, 함부르크 및 쾰른 등 도시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열차

우리 일행은 베를린 중앙역에 예정된 오후 5시에 정확히 도착하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680km 더 북쪽에 있는 곳이라 그런지 5월 치곤 제법 날씨가 쌀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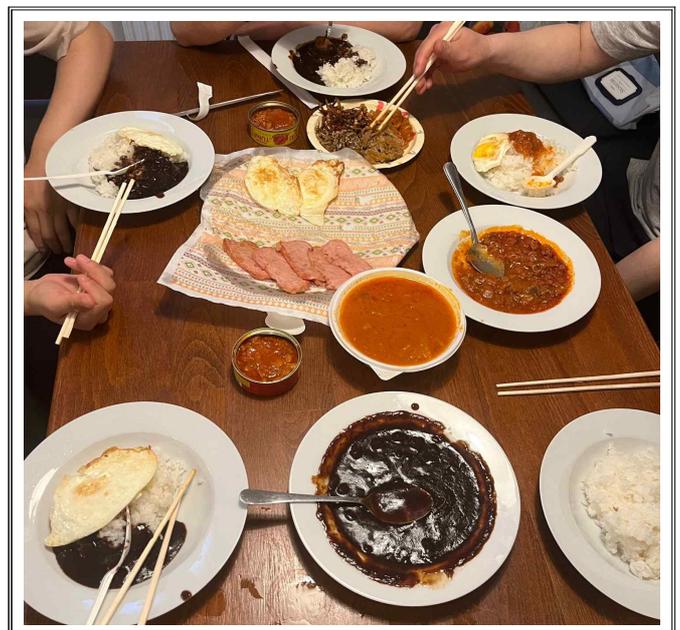
숙소는 인터넷으로 봤던 모습과 흡사했지만 5명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협소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잠깐 생활하며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일정상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베를린 도착한 당일밖에 없어서 서둘러 현지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나갔다. 5일간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간 것도 있지만 베를린 사람들의 퇴근 이후 일상생활을 보고 싶은 마음도 크게 작용했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의 동네 장보기”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명절 때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정치인만 보다가 진짜로 그냥 서민의 삶이 녹아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름답고 존경스러웠다.



독일의 생수는 한국 원화로 계산해보면 꽤 비싼 편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높이는 의도도 있겠지만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독일은 생수통 반환보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매우 비싸게 여기는 에비앙 생수가 독일 브랜드 생수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다

베를린의 시간은 한국의 시간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한국에서도 일상이 바쁜 게 현실이지만 베를린에서도 준비된 기관방문을 위해 숙소에서 저녁을 차려 먹고 자체적으로 사전 준비하는 등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갔다.

### < 간담회 준비와 베를린 숙소 저녁 만찬 >



베를린은 동서독 분단으로 냉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었지만 과거의 어두웠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동베를린 지역 또한 화려한 쇼핑가와 잘 정돈된 도심 모습밖에 없었다. 다만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을 지나쳐 갈 때 이곳이 한때 이념으로 갈라져 동쪽끼리 총과 칼로 대결을 한 역사적 무대였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도 곧 통일이 진행되는 역사가 아니라 독일처럼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낮선 곳에서 7일 동안 걷고, 타고, 패스트 푸드를 먹으며 현지 도시 그대로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을 보고자 우리 일행은 부단히도 애를 썼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비행기 편도 국적기를 포기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민박집을 베를린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정했으며 기관방문(공유 차량)과 숙소 이동(대형 밴) 이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 출장단은 금전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어떤 조력자도 없이 출장하는 것이 살짝 더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나 싶고 또한 모두가 대중교통과 걸기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지치고 힘들지 않았나 싶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7박 9일간의 국외 출장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출장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출장이 될 것 같다.

## VII. 참 조

- 외 교 부 <https://www.mofa.go.kr/>
- 나무위키 <https://namu.wiki>
- 위키백과 <https://wikipedia.org/wiki>
- 티스토리 <https://tistory.com>
- 네 이 버 <https://naver.com>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
- 구글 <https://www.google.co.kr>
-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kr/maps>
- 헤시안 병원협회(HKG) <https://www.hkg-online.de>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https://www.bmfsfj.de>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https://www.kas.de>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414152839561>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2020). Ratgeber Pflege Alles, was Sie zum Thema Pflege wissen sollten.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